

<32 회 감정평가사회계학 기출문제 해설>

41.② <해설>

- ① : 근본적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 ③ : 보고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과거정보를 통해 추세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 ⑤ :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42.⑤ <해설>

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하다.
-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 개월 이내에 도래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수입인지와 우표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구입대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선급비용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며, 자기주식은 자본항목이다.

43.③ <해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방법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44.⑤ <해설>

POINT: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 부채이다. 단, K-IFRS 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

(차) 현금	80,000	(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80,000
--------	--------	-----	--------------	--------

평가시

(차)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15,000	(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평가이익(OCI)	5,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평가이익(NI)	10,000

45.③ <해설>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을 말한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환입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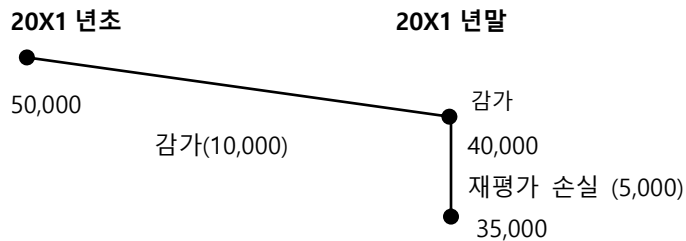
46.⑤ <해설>

POINT: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리스부채의 복합문제

취득시

(차) 사용권자산	50,000	(대) 리스부채	50,000
-----------	--------	----------	--------

사용권자산의 상각



리스부채의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6,000	(대) 현금	13,870
리스부채	7,870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감가상각비 (₩10,000) + 재평가손실(₩5,000) + 이자비용(₩6,000)
= (₩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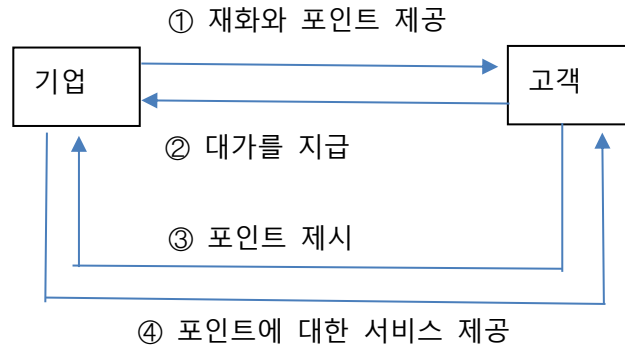
47.③ <해설>

POINT: 자본의 변동이 없는 자본항목

무상증자, 주식배당,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의 변동을 주지 않는다.

기말자본 = ₩10,000 - 주식취득 ₩600 + 당기순이익 ₩1,000 + 기타포괄이익 ₩800
= ₩11,200

48.① <해설>



개별 판매가격의 측정

- ① 제품판매: 9,450
- ② 포인트: 2,000 점 × ₩0.7 × 75% = ₩1,050

거래가격의 배분

- ① 매출: ₩10,000 × ₩9,450 / (₩9,450 + ₩1,050) = ₩9,000
- ② 포인트: ₩10,000 × ₩1,050 / (₩9,450 + ₩1,050) = ₩1,000

49.② <해설>

POINT: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란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수 있는 전환권과 기간 만료시 상환해야하는 상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이다. K-IFRS 에서는 복합금융상품에서 전환에 대한 요소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환에 대한 요소는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해줄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때 상환우선주가 누적적인지 비누적인지에 따라 금융부채의 구성요소가 달라진다. 누적적인 경우 배당에 대한 요소까지 부채로 인식하여 향후 배당의 지급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비누적인 경우 배당에 대한 요소는 자본으로 인식한 후 배당의 지급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인식한다.

문제를 살펴보면 자본은 전환에 대한 대가이므로 금융부채 요소인 ₩80,000 에는 원금에 대한 요소와 배당에 대한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의 지급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이자비용	8,000	(대) 현금(배당)	2,000
		금융부채	6,000

금융부채 잔액 ₩86,000

금융부채 요소 전환시 자본금 증가액 = ₩86,000 × 40% = ₩34,400

50.① <해설>

POINT: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항목

- ㄱ: 창고에 있더라도 회사의 소유이므로 포함
- ㄴ: 선적지 조건으로 **판매**한것이므로 미포함
- ㄷ: 고객에게 팔린것이므로 미포함
- ㄹ: 도착지인도조건에서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미포함

51.③ <해설>

변동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금액이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기대값은 기업에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52.④ <해설>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투자부동산의 개발이 완료된 경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3.④ <해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54.② <해설>

POINT: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

X3 년말 장부금액 = ₩1,000,000 - {(₩1,000,000-₩50,000) × 3/5} = ₩430,000

X4 년말 감가상각비 = ₩100,000 = (₩430,000 - 잔존가치) / 잔존내용연수 4 년

잔존가치 = ₩30,000

55.① <해설>

POINT: 재고자산의 매입원가

당기매입: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시 차감하는 항목으로 매입원가에 미포함

매입운임 & 하역료 & 관세납부: 재고자산의 취득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포함

매입할인 & 리베이트: 매입의 취소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차감

보관료: 후속생산단계 투입하기 위한 보관이 아니라면 취득과 관련없는 보관비용이므로 미포함

56.④ <해설>

POINT: 유형자산과 어음의 이자비용

지급어음의 현재가치: ₩100,000 × 2.40183 = ₩240,183

(차) 기계장치	240,183	(대) 지급어음	240,183
----------	---------	----------	---------

감가상각비 = ₩240,183 / 3 = ₩80,061

이자비용 = ₩240,183 × 0.12 = ₩28,822

인식할 비용 = ₩80,061 + ₩28,822 = ₩108,883

57.② <해설>

POINT: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공정가치 발행가능한 유상주식수(2,000 주×₩40,000)/₩50,000=1,600 주

무상증자 요소: 400 주

무상증자 요소는 다시 기초유통주식수와 7 월 1 일의 공정가치요소에 배분한다

->7 월 1 일에 배부할 무상증자 요소: 400 주 × 1,600/(18,400+1,600) = 32 주

->기초에 배부할 무상증자 요소: 400 주 - 32 주 = 368 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8,400+368)×12/12 + (1,600+32)×6/12 - 1,500×4/12 = 19,084 주

58.② <해설>

POINT: 총당부채의 정의

총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음
-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구조조정 계획: 구조조정은 그 계획이 이행되고 공표되어야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므로 회사역시 이행이 되거나 공표되는 시점에 의무가 생기게 된다.

소송사건: 손해배상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다.

미래의 영업손실: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원상복구원가: 과거사건의 결과로 복구의무가 생겼으므로 총당부채로 인식한다.

보증총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보증의무가 발생하였다. 다만, 보험사가 보증하는 부분은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므로 총당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59.③ <해설>

POINT: 법인세 비용의 회계처리

X1 년	금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별과금	2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	15,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5,000
과세소득	₩550,000
세율	20%
납부할세액	₩110,000

이연법인세 자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5,000 × 20% = ₩3,000

(차) 이연법인세 자산	3,000	(대) 미지급 법인세	110,000
법인세 비용	107,000		

유효법인세율 = ₩107,000 / ₩500,000 = 21.4%

60.④ <해설>

POINT: 연구비는 비용, 개발비는 자산인식요건 충족시 무형자산

무형자산에서 연구비는 비용처리하며 개발비는 자산인식 요건 충족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50,000 과 추가지출액 ₩100,000 이 무형자산이 되며,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한다.

X3 년말 장부금액 ₩150,000 - (₩150,000 / 10) = ₩135,000

X3 년말 손상차손 = ₩135,000 - ₩80,000 = ₩55,000

61.④ <해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기업은 미래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 등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계약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

62.① <해설>

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한다는 것은 임대수익을 얻는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장래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산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본다.

63.① <해설>

POINT: 위탁판매의 수익인식 시점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과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매출원가 = ₩700 × 7 대 = ₩4,900

운송업체에 지급한 운송비용은 재고자산을 판매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비용이므로 이역시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운송비 매출원가 = ₩100 × 7/10 = ₩70

매출원가의 합계 = ₩4,970

64.④ <해설>

POINT: 권리 행사분 내재가치로 현금 지급, 미행사분 공정가치 변동인식

X2 년도에 가득기간이 완료되었고 가득기간 이후 권리 미행사분은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행사분에 대하여는 내재가치로 지급하는 현금과 장기미지급비용의 차이를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한다.

가득된 수량 = (100 명-30 명) × 20 개 = 1,400 개

권리행사분 = 1,400 개 × 200 개/1,400 개 = 200 개

권리미행사분 = 1,200 개

행사분에 대한 회계처리

(차) 장기미지급비용	1,786**	(대) 현금	2,000*
주식보상비용	214		

*200 개 × ₩10 = ₩2,000

**₩12,500 × 200 개/1,400 개 = ₩1,786

미행사분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

(100 명 - 40 명) × 20 개 × ₩15 - (₩12,500 × 1,200 개/1,400 개) = ₩7,286

주식보상비용 = ₩214 + ₩7,286 = ₩7,500

65.① <해설>

POINT: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원가 = ₩180 × 20 주 + ₩150 = ₩3,750

X1 년말 주식의 공정가치 = ₩240 × 20 주 = ₩4,800

기타포괄이익 = ₩4,800 - ₩3,750 = ₩1,050

66.⑤ <해설>

POINT: 현금흐름표의 변형

기존의 형식과는 약간 다르게 나왔으나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을 직접 구해서 풀면된다.

현금흐름표	
당기순이익	₩1,500-₩600=₩900
+법인세비용	-
+이자비용	-
+영업활동과 무관한비용	-
- 영업활동과 무관한수익	-
+/- 영업활동 자산의 증감	재고자산 감소 ₩200 미수수익 증가 (₩300) 매출채권의 감소 ₩100
+/- 영업활동 부채의 증감	미지급비용의 감소 (₩30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600
-이자의 지급	-
-법인세의 지급	-
영업활동 순 현금흐름	₩600

67.⑤ <해설>

POINT: 회계 정책의 변경과 재고자산의 자동조정

	X1 년 당기순이익	X2 년 당기순이익
X1 년 재고 과대	₩300	(₩300)
X2 년 재고 과소		(₩600)
	₩300	(₩900)

평균법에 의한경우 X2 년도 당기순이익은 900 원만큼 감소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선입선출법으로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900 이 증가할 것이다.

$$\text{X2 년 당기순이익} = \text{₩2,000} + \text{₩900} = \text{₩2,900}$$

68.① <해설>

POINT: 비자동조정오류의 전기이전효과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X1 년도 초 회계처리

오류

(차) 현금	1,600	(대) 잡이익	1,600
--------	-------	---------	-------

올바른 회계처리

(차) 현금	1,600	(대) 유형자산	1,500
		처분이익	100

X1 년 and x2 년 말 회계처리

오류

(차) 감가상각비	250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
-----------	-----	-------------	-----

올바른 회계처리

(차) 회계처리 없음		(대) 회계처리 없음	
-------------	--	-------------	--

X3 년 발견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	(대) 유형자산	1,500
이익잉여금	1,000		

X3 년초 장부금액 분석

	수정전	수정후
유형자산	₩1,500	0
감가상각누계액	₩500	0
이월 이익잉여금	잡이익₩1,600 + 감가상각비(₩500)=₩1,100	처분이익₩100

해당문제를 정석대로 풀면 위와같이 풀어야 겠지만, X3 년초 발견되었으며 장부가 마감된 상태이므로 X1 년과 X2 년의 손익항목 오류는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9.② <해설>

POINT: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 = MAX[사용가치, 순공정가치]

회수가능액 = MAX[사용가치 ₩1,800, 순공정가치 ₩1,200] = ₩1,800

손상차손 = ₩3,500 - ₩1,800 = ₩1,700

70.⑤ <해설>

POINT: 보증충당부채

확신유형 보증충당부채는 판매한 제품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수리 또는 교환해주는 기업의 약속에 의해 생긴다. 따라서 이는 수행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제품 인도시에는 매출을 인식하고 매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를 제품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한다.

X1 년 보증비용 예상액 = 1,500 대 × 3% × ₩20 = ₩900

X1 년 제품보증 충당부채 = 1,500 대 × 3% × ₩20 - 실제발생 ₩100 = ₩800

제품보증기간이 2 년이므로 X2 년도에 X1 년도 판매분을 같이 고려한다.

X2 년 보증비용 예상액 = 5,500 대 × 3% × ₩20 = ₩3,300

X2 년 제품보증 충당부채 = ₩3,300 - (50 대 × ₩20) = ₩2,300

71.④ <해설>

①: 제약이론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데 제약이 되는 요인을 찾아 이를 집중관리하고 개선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현금창출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중하나로 재료처리량 공헌이익을 사용하는데 매출액에서 직접재료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수명주기원가계산은 연구개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제품수명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생산자 관점에서 생산주기에 가장많은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 및 설계단계에서 많은 원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추세와 같이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제조단계보다는 제조단계 외의 부분에서 원가절감 여지가 더 높아진다.

③: 목표원가계산은 시장 수요에 기초해서 제품의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제품개발의 초기단계에 사용되는 원가기획이다. 따라서 원가를 기획하여 목표원가가 달성되도록 제품설계단계에서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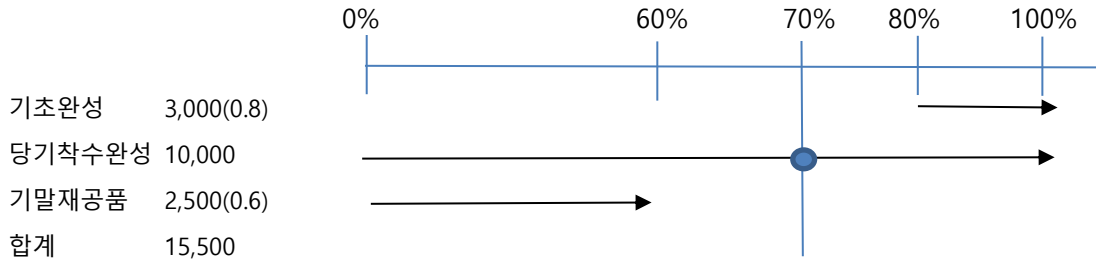
④: 균형성과표는 전략을 재무적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성장관점의 네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 관점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고, 이를 통해 어느 한쪽의 관점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직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키는 장점이 있다.

⑤: 품질원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만족시키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원가는 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실패원가, 외부실패원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원가와 평가원가는 통제원가라 하고 내부실패원가와 외부실패원가는 실패원가라고 한다.

72.② <해설>

POINT: 검사합격 물량과 정상공손수량의 파악

1. 검사합격물량과 수량의 계산



공손(불합격)수량 = 기초 3,000 + 당기착수 14,000 - 당기완성 13,000 - 기말재공 2,500 = 1,500

합격수량 = 10,000

정상공손수량 = 10,000 × 0.1 = 1,000

비정상공손수량 = 1,500 - 1,000 = 500

2. 종합원가계산

1 단계: 물량의 흐름

기초	3,000(1)(0.8)	당기완성 13,000
		정상공손 1,000(1)(0.7)
		비정상공손 500(1)(0.7)
착수	14,000	기말 2,500(1)(0.6)

2 단계: 완성품환산량

직접 재료비		가공원가	
당기완성	13,000	당기완성	13,000
정상공손	1,000	정상공손	700
비정상공손	500	비정상공손	350
기말	2,500	기말	150
합계	17,000	합계	14,200
단위당	30	단위당	20
원가		원가	

3. 원가의 배분

정상공손원가 = ₩30 × 1,000 + ₩20 × 700 = ₩44,000

정상공손은 검사시점을 통과한 물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문제에서는 완성품만 검사시점을 통과하였으므로 정상공손원가는 모두 완성품에 배분한다.

완성품에 배부되는 원가 = ₩44,000

73. ⑤ <해설>

POINT: 관련원가 의사결정 _ 변경전과 변경후를 비교하자

[제품라인 폐쇄 후 영업손익]

구분	A	B	C	비고
매출	₩200,000	0	₩400,000	C 매출감소
변동원가	₩100,000	0	₩176,000	C 변동비감소
공헌이익	₩100,000	0	₩224,000	
급여	₩30,000	₩50,000	₩80,000	급여 회피불능
광고선전비	₩10,000	0	₩70,000	
기타배부액	₩33,333	0	₩66,667	
영업손익	₩26,667	(₩50,000)	₩7,333	

제품라인 폐쇄 후 영업이익 = ₩26,667 - ₩50,000 + ₩7,333 = (₩16,000)

영업이익 감소액 = ₩80,000 + ₩16,000 = ₩96,000

74.② <해설>

POINT: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차이분석

AQ×AP

실제발생 ₩23,000

AQ×SP

실제시간 10,400×SP

=₩2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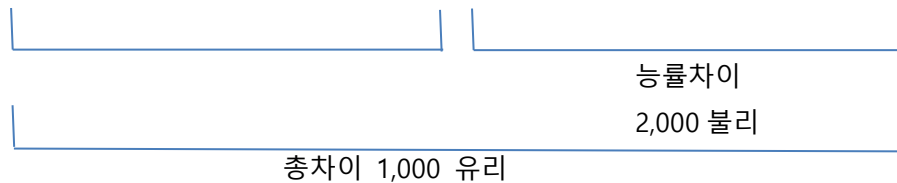
SP = 2.5

SQ×SP

실제생산×2 시간×SP

= ₩24,000

실제생산 = 4,800 개



75.⑤ <해설>

POINT: 원가전반의 이해

생산량이 5,000 개인 경우 변동원가는 ₩20 이다. 따라서 단위당 원가에 생산량을 곱하면 5,000 개일 때 변동원가는 ₩100,000, 고정원가는 ₩50,000 으로 총원가는 ₩150,000 이 된다.

고정원가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산량이 2,000 개일 때 역시 ₩50,000 이다. 반대로 단위당 변동원가는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정이다. 따라서 2,000 개일때역시 단위당 변동원가는 ₩20 이며, 총변동원가는 ₩40,000 임을 알 수있다.

76.③ <해설>

POINT: 정상원가계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는 예정배부율로

정상원가계산에서의 배부율 = ₩928,000 / 80,000 = ₩11.6

실제기계작업시간×₩11.6 = ₩840,710

실제기계작업시간 = 72,475 시간

77.④ <해설>

POINT: 영업이익 차이조정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X+₩30,000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750,000/5,000 개×500 개 = ₩75,000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	???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X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가 ₩105,000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750,000/5,000 개 × 기초재고수량 = ₩105,000

기초재고수량 = 700 개

78.③ <해설>

	X1 년	X2 년(20%증가)
매출액	₩1,200,000	₩1,440,000
변동원가	₩700,000	₩840,000
공헌이익	500,000	600,000
고정원가	300,000	300,000
영업이익	₩200,000	₩300,000

79.⑤ <해설>

POINT: 복수제품 CVP 분석은 묶음으로 푼다

회사의 공헌이익 = 영업이익 + 고정원가 = ₩5,250,000

묶음수준(회사 전체)의 공헌이익율 = ₩5,250,000 / ₩15,000,000 = 35%

A 매출배합 0.25×A 공헌이익율 0.23 + B 매출배합 0.75×B 공헌이익율 = 35%

B 공헌이익율 = 39%

80.② <해설>

POINT: 투자중심점 성과평가

$$ROI = \text{영업이익} / \text{투자액} = 10\% = \text{영업이익} / \text{₩2,500,000}$$

$$\text{영업이익} = \text{₩250,000}$$

$$RI = \text{영업이익} - \text{투자액} \times \text{최저필수수익률} = \text{₩25,000} = \text{₩250,000} - \text{₩2,500,000} \times \text{최저필수수익률}$$

$$\text{최저필수수익률} = 9\%$$